

어렸을 때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밤이면 마당 한가운데 매캐한 모깃불을 피워놓고 멍석에 누워 할머니께 얘기 보따리 끌러달라고 조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하늘엔 별이 총총했고 내 눈도 별빛을 따라 초롱초롱 빛나곤 했다.

“옛날에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었지. 달도 없이 캄캄한 밤에 배는 고프고 금방이라도 무서운 짐승이 달려들 것만 같아 간이 콩알만 한데 저 멀리 깜박깜박 조그만 불빛이 보였단다.”

이야기 속의 나그네가 되어 마음 졸이는 내게 그 불빛은 안도와 휴식과 평온을 주는 따뜻하고 아늑한 불빛이었다.

저녁이 되어 하얀 사기 호롱에 불을 붙이면 어슴프레한 빛아래 침침하던 눈이 놀라 활짝 커진다. 얇고 투명한 호야 속에 손을 넣어 석유 그을음을 말끔히 닦아내는 일을 어머니 조심성 많다고 꼭 내게 시키곤 하셨다. 심지를 돌우면 갑자기 밝아지던 방에서 마음도 덩달아 환해지곤 했었다.

그러다가 전기가 가설되자 대부분 가정에선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불이 들어왔는데 아버지께서 한전에 다니셨던 우리 집은 하루종일 전기를 쓸 수 있는

행운도 누렸다. 아버지 덕분에 나는 전기에 대해선 제법 안다고 겁없이 이것저것 손을 대보곤 했다.

해마다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그해 겨울도 유난히 추웠다. 창들은 저마다 덜컹덜컹 불협화음을 내고 이가 맞지 않는 창틈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어왔다.

탄탄한 기초도 없이 불력만으로 대강 쌓아 시멘트와 페인트로 걸만 번지르르하게 칠한 번두리의 무허가 집을 세내어 페인트 가게를 차렸다. 이곳이 신개발지로 제법 일거리가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남편은 일군들을 데리고 페인트 공사를 맡아 여기저기 다니고 몸이 약해 늘 어딘가가 아픈 나는 가게를 지키며 페인트를 팔거나 전화주문을 받아놓곤 했다. 그런대로 일거리가 있어 남편은 별을 보고 나가 별을 보고 들어오거나 며칠씩 다른 지방으로 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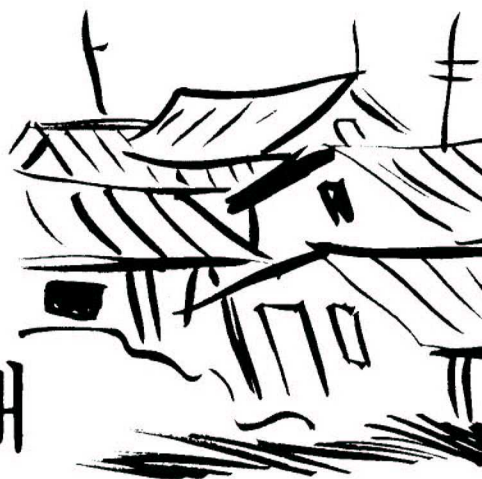
남편은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워낙 맨손으로 시작한 살림인데다 몸이 약한 나 때문에 돈이 모이질 않았다. 그리고 남의 사정을 내 사정보다 먼저 생각하고 모진 곳이 없는 남편의 성격 탓에 일을 끝내주고도 받지 못하는 돈이 여기저기 깔려 있는 것도 한 원인이었다.

■ 체험수기 / 제12회 불조심 여성수필수기 현상모집 장려작



옥 계 자
(전주시 상대1동)

엄마,
우린 왜
가난해요



좋은 사람을 좋게 대해주면 좋으려만 어찌된 세상이
그런수록 사람을 우습게 보고 차일피일 변명하며
요리조리 피하는 통에 돈을 받으려 간 남편은 지치고
구겨진채 빈손으로 돌아오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계산상으로는 이익이 생기지만 도무지 살림은
펴지지가 않고 설상가상 페인트칠을 하던 일꾼이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여러달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으니 그 치료비며 가족들의 생계까지
우리가 맡게 되었다.

참으로 사람의 일이란 왜그리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지가 않던지...

그날 남편은 공사를 해주고 몇 달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공사비를 받으러 가고 나는 방학을 맞은 딸애들과
이불속에 발을 묻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외풍이 워낙 세어 방바닥은 뜨거워도 등이 시린
형편이라 불을 켜고 앉고 있어야 했으나 아이들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면 깔깔거리며 마냥 즐거워했다.

그런데 텔레비전의 소음에 섞여 타는 냄새와 뭔가
타타타타 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끄라고 한 후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누군가가 불을 세차게 두드리며 "불 났어요. 불!" 하며

소리치는 게 아닌가. 깜짝 놀라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뛰어 나왔다.

"갑소사! 이럴 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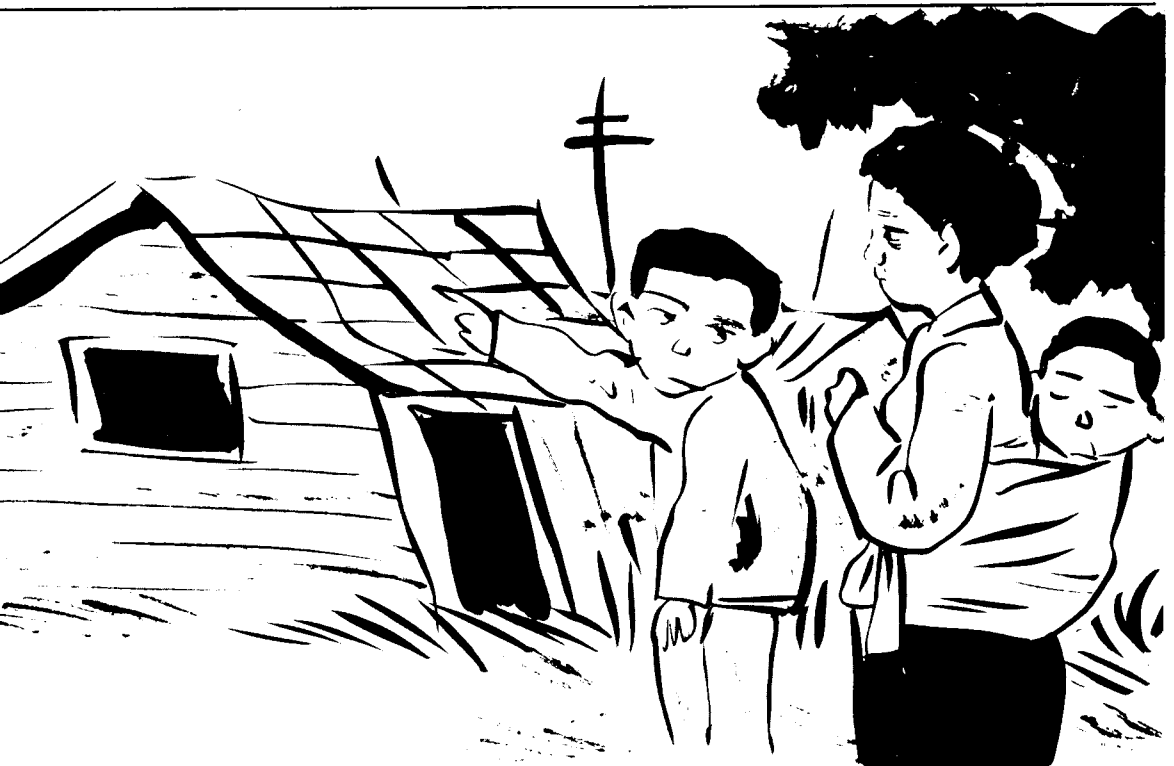
지붕 밑에는 마녀의 입술 같은 새빨간 불길의
날름 거리고 연기가 자욱했다.

아이들은 울고불고 야단이었고 나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뭔가 꺼내긴 해야겠다 싶어 안으로
들어가려니까 이웃사람들이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다.

그 와중에서도 가스집에서 달려와 재빨리 가스통을
실어 갔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침착하고 책임있는
사람이라 싶어 여전히 단골이 되고 있다.

길가던 사람들이 먼저 불을 발견했다는데 우리는
바로 머리 위에서 불이 번지고 있는 것도 모른채
태평스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으니 온 식구가 재가
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지 모른다.

양화점, 표구점 그리고 페인트를 취급하는 우리까지
세 가게가 한 건물에 있었다. 모두 불에 잘 타는
물건이었지만 특히 우리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
많았다. 누군가가 신고를 하여 소방차가 왔지만
지독히 추웠던 날씨 탓에 호스가 얼어 붙어 진화
: 더욱 늦어졌다.



온 동네를 뒤덮은 시커먼 연기와 유독성 가스가 천지에 가득한 길가에 주저앉아 나는 녀이 빠져 울지도 못했다.

책이 다 타버렸다고 받을 동동 구르는 아이들은 지금 책이 문체너며 야단을 쳐서 언니집으로 보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검게 그을려 물만 질퍽한 이 아수라장이 가난하지만 안락했던 내 보금자리란 말인가. 어떻게 알았는지 남편이 새파래진 얼굴로 달려왔다. “당신 외상 장부 꺼냈어?”

기가 막혔다. 사람들이 아무리 말렸더라도 들어가 그건 꺼냈어야 하는데...

페인트를 대어준 곳이 한두군데가 아니고 공사비 받을 곳도 여러 곳이지만 다 외고있지 못하는데 이를 어찌나. 짧은 겨울해는 떨어지고 어둡고 차가운 폐허 속에 나는 만신창이가 되어 맨몸으로 바람을 맞았다.

화재의 원인은 누전이라 했다. 천정 위에서 누전으로 불이나 방안에 있던 우리도 모르는 새 불길의 번져갔다는 것이었다.

불이 나던 날, 뒷마당에서 산소용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불티가 옮겨 붙은 게 아닌가 밝혀달라고 했지만 힘없는 내 의견은 묵살되고 말았다.

무허가집에 누전으로 불이 났으니 모든 건 내 탓으로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땅을 빌어 무허가 건물을 지어 세를 놓은 사람을 찾아가 봤지만 이미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없었다. 부인을 만나봤더니 돈은 하나도 없고 사람을 찾아도 몸으로 떼울 수 밖에 없다고 하니 피땀 모인 전세금 9백만원은 불에 타 재가 돼 버린 것이었다.

땅 주인은 자기가 다시 건축을 해 세를 주겠다고 했다. 그때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거액의 전세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계획도 세우지 못한채 남편의 친구가 지어 아직 팔리지 않은 새집에 임시로 머물기로 했다.

참으로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하느님, 저희가 언제 생활에 큰 욕심을 내었습니까? 10년이 넘어 닳고 이지러진 것 밖에 없지만 저희는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크고 번쩍거리고 요란한 쪽으로만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믿음직한
 말이 어디에 있으랴.

눈길을 돌려도 저희는 작은 진실을 보석처럼 꺼안고 부끄럽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 힘이 빠지려 합니다. 이마져 놓쳐 버리고 끝도 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질까 진정 두렵습니다.

어디서 용기를 얻어야 할까요?

당신은 너무 멀리 계시고 지혜롭지 못한 제겐 형상조차 희미합니다.’

울면서 썼던 그때의 일기는 지금 보아도 여전히 눈물겹다. 알몸둥이만 겨우 빠져나온 우리는 숲가락에서부터 내의, 신발, 이불 등 모든 걸 새로 마련해야 했다.

형제들과 친목회에서 도와주어 그럭저럭 마련이 되었다. 학교에서도 어떻게 아셨던지 교과서랑 학용품들을 보내주셨고 딸애의 친구들은 책가방을 사가지고 왔다. 조그맣지만 어여쁜 그 마음들을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하리라.

몇 번을 사정해도 받지 못했던 외상값도 불이 나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알려지자 몇 사람이 돈을 들고 찾아왔다. 각박한 세상이긴 하지만 곳곳에 보이지 않게 인정들이 자리하고 있구나 싶어 당연히 받을 걸 받으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다. 그때의 여러 일을 통하여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살아가면서 나도 힘 자라는대로 열심히 사랑을 갖고 또 베풀어 가리라 다짐했다.

불이 났던 자리에는 말끔한 새 건물이 들어섰고 작긴 하지만 방도 물을 넣어 딸애들은 저희끼리 있게 됐다며 좋아서 아담이었다.

직금을 넣던 농협에서 대부를 받고 전세의 일부를 월세로 돌리고 우리는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남편은 비지땀을 흘리며 더 열심히 일하고 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 어려움을 당한 뒤에 더 꾀꾀하고 강한 삶의 의지가 생겨 고맙기 그지없다.

그러나 아직은 마음 아픈 일이 더 많은 게 사실이다.

“엄마, 우린 왜 가난해요?”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온 막내딸이 물어 왔다.

“그건 말이야. 이 담에 우리가 부자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열심히 도와 주라고 하느님이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란다. 지금은 불도 나고 해서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아빠가 열심히 하시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자.”

그 조그만 가슴에 묻어 두었다가 혼자서는 감당해 수가 없었던지 물어온 막내가 정말 측은했다.

“엄마, 선생님이 꽃 사올 사람 손들라고 하셨는데 난 손 안들었어요. 잘 했죠?”

아아, 내가 뭐라고 말해 수 있을까.

유난스레 샘이 많은 막내딸은 자기가 사간 꽃이 선생님 책상 위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선생님이 꽃처럼 웃으시며 “윤명아, 고맙나” 하실 말씀은 또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나는 얼른 머리 속으로 가난했던 위인들을 생각해 봤다. 제일 먼저 링컨이 떠올랐다. 그러나 링컨 이야기가 이 어린 것에게 무슨 위안을 줄 수 있으랴.

가난이 얼마나 사람을 작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지 딸애를 통하여 아프게 깨달았다.

진작에 보험을 들어 두었다더라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었으려만 나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보험을 불신했다.

화재가 나리라곤 생각조차 안했으니 화재보험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보험에 든다는 것도 마치 사고나기를 바라는 것 같아 꺼림직했다. 보험살인이 메스컴을 통해 여러번 보도됐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이제 앞날을 대비해 줄 아는 해안을 가질 나이도 되었다.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믿음직한 말이 어디 있으랴. ☹